인문연구 제97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7, No. 1, pp.279~307
http://dx.doi.org/10.21211/JHUM.97.10

남북한 영화 속 외국인 영웅상 비교 : 「인천상륙작전」의 맥아더와 「영원한 전우」의 노비첸코

강응천*

〈차 례〉

1. 머리말
2.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
3. 영화 「영원한 전우」와 노비첸코
4. 맥아더와 노비첸코의 비교 – '수호신'과 '동지'
5. 맺음말

【국문초록】

「인천상륙작전」(2016)과 「영원한 전우」(1985)는 외국인 영웅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영화다.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과 해방 직후 북한에서 김일성의 목숨을 구해 준 노비첸코 소위가 그 외국인 영웅이다. 맥아더가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남한의 보수 진영에 의해 신격화된 존재라면, 노비첸코는 북한 인민의 친근한 벗으로 나타난다. 그들에게는 분단에 기인한 남북한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이 투영되어 있다. 맥아더를 둘러싼 남남갈등은 합리적 논쟁을 통해 현대사의 진실 규명으로 이어진다면 부정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노비첸코의 국제주의적 희생정신은 수령체제의 정치적 프리즘을 걷어내고 본다면 인간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두 외국인 영웅은 영화의 텍스트를 넘어 현대사의 새로운 문맥에서 재조명될 수 있고 남북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신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캐릭터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한국 영화, 북한 영화, 외국인 영웅, 인천상륙작전, 맥아더, 영원한 전우

1. 머리말

영화만큼 영웅의 형상화에 최적화된 장르도 없다. 미국 아카데미상을 비롯한 유수의 영화상에서 배우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상, 아니 어쩌면 모든 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은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일 것이다. 영화에서 주연 배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개 다른 모든 배우를 압도한다. 선전·선동의 목적이 강한 북한의 예술영화든 대중을 유혹해야 하는 남한의 상업 영화든 주연을 통한 매력적 영웅 캐릭터의 창출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분단 70여 년 동안 남북한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영화는 별처럼 많은 영웅상을 창조해 왔다. 그러나 양측의 어떤 영화에서도 외국인을 영웅, 그것도 남북한 대중의 영웅으로 묘사하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남북한이 외세에 시달려온 근대사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양측의 대중이 고도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인다.

1985년 북한과 소련이 합작한 영화 「영원한 전우(Вечные Товарищи)」와 2016년 남한의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그런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두 영화는 남북한에서 각각 사랑받는 외국인 영웅을 형상화하고 있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 김일성의 목숨을 구해 준 야코프 노비첸코(Якоб Новитченко) 소위와 인천상륙작전으로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꿔 놓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cArthur) 장군이 그 주인공이다.

남북한의 체제가 대조적인 만큼이나 두 영화가 형상화한 외국인 영웅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맥아더와 노비첸코의 국적은 냉전의 두 주역으로 남북한의 분단과 대결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미국과 소련이었다. 장군과 소위라는 계급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맥아더와 노비첸코는 전혀 다른 성격의 영웅이다. 맥아더는 남한에서 일부 무속인이 실제 신으로 섬기는 사례가 있을 만큼 신성시되고 있다.[1] 노비첸코는 북한에서 신격화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에 부수된 캐릭터로서 북한 인민의 친근한 벗으로 나타난다.

남북한 현대사에 영향을 미친 외국인은 적지 않았다. 예컨대 남한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할 만큼 한국을 사랑한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나 1994년 북한을 방문해 핵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한 지미 카터(Jimmy Carter)가 얼른 떠오른다.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彭德怀)나 1980년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해 그 체제를 찬양한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Luise Rinser)를 쉽게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인천상륙작전」과 「영원한 전우」에

---

1) 심형준, 「역사적 인물의 상징화와 신격화: 맥아더에 관한 두 개의 기억」, 종교문화비평학회, 『종교문화비평』 제30권 제30호, 2016, pp. 252-283; 유민형, 「황해도굿의 '맥아도 몸주신' 연구 - 이정자 만신을 예증삼아 -」, 한국무속학회, 『한국무속학』 제40집, 2020, pp. 187-211 참조.

서 맥아더와 노비첸코가 주는 강렬한 인상과 영향력을 능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두 영화가 보여주는 두 사람의 영웅성은 어디서 비롯되었고, 남북한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영화가 역사적 사건을 다뤘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재료일 뿐 영화의 서사는 역사 아닌 창작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도 두 영화의 서사에 대한 분석이 역사적 논의와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 역사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두 영화는 현실에 개입할 목적으로 역사적 인물을 골라 영웅화를 시도했으니, 그 역사적 문맥은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창조된 영웅상은 영화의 의도를 떠나 현대 사회와 상호작용해 왔으니, 이 역시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분석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 아래 두 외국인이 각각 남북한에서 영웅적 캐릭터로 떠오르게 되는 영화사적, 사회사적 맥락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두 영웅이 남북한 사회에서 소비되고 회자되어 온 양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남북한 각각의 영화사나 영화론을 다룬 연구는 많으나 남북한 영화를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2] 남북한이 공유한 비극적 경험으로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양측의 영화적 시선을 비교한 연구에 집중된 편이다.[3] 「영원한 전우」와 노비첸코는 북한 영화에 대한 최

2) 송낙원 · 오영숙 · 장우진 · 정태수 · 조지훈 · 황보성진, 『남북한 영화사 비교연구(1945-2006)』, 국학자료원, 2007은 통사를, 임인재 · 함충범, 「남북한 영화의 교류 · 관계사 연구(1945~1960)」,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제85집, 2021, pp. 159-210은 교류사를 다뤘다.

3) 정영권, 「남북한 전쟁영화의 민족 재현 비교연구 :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과 〈월미도〉(1982)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제11호, 2010, pp. 185-209; 이하나, 「북한 전쟁영화의 기억법과 소구법 -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남한 전쟁영화와의 비교를 통해 본 북한 전쟁영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19권 제1호, 2015, pp. 73-114; 손석춘, 「인천상륙작전의 소통과 치유 -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척호, 몬마 다카시(門間貴志) 등의 통사적 연구에서 비교적 짧게 언급되고 있다.[4] 맥아더를 둘러싼 남한 사회의 이념적 논쟁과 갈등에 관해서는 이희환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5] 맥아더와 노비첸코가 영웅 캐릭터로 부상하는 과정, 그들이 남북한 사회와 맺어온 관계에 관해서는 학술 연구 외에도 신문, 잡지, 연감 등에 실린 평론과 기사, 김일성 저작 등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기존 연구와 자료의 기반 위에서 본 논문이 검증하려는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두 외국인 영웅상의 형성과정에는 분단에 기인한 남북한 사회 각각의 특징과 근본적 문제점이 상당한 정도로 각인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두 영웅상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그러한 특징과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곧 남북한 현대사에 드리운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다.

2.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의 신격화에 투영된 남한 사회의 특수하고 기형적이기조차 한 반공적, 친미적 역사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역사적 사실로부터 분리되어 초인으로 형상화된 맥아더는 미국의 강력한 개입 아래 반공의 첨병으로 주조된 현대 남한 사회의 일그러진 초상이다. 그런가 하면 「인천상륙작전」의 흥행 성적과 작품성의 반비례, 영화에 대한 반응의

〈월미도〉 비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제70집, 2017, pp. 201-232 등 참조.

4) 최척호, 『북한영화사』, 집문당, 2000; 門間貴志,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映畵史 : 建国から現在までの全記録』, 東京: 現代書館, 2012.

5) 이희환, 「반공도시 인천과 맥아더 동상의 냉전정치학」,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통권 제97호, 2017. 12, pp. 386-397.

양극화는 21세기 남한 사회의 세계관과 역사관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징조로 읽힌다.

남한에서 맥아더가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였다. 영화에서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남한을 패전으로부터 구했다는 이유에서다.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권력의 마르지 않는 샘을 찾은 이승만은 1957년 9월 인천 자유공원에 맥아더의 동상을 건립하고 그에 대한 숭배를 부추겼다. 흥미로운 것은 영구 집권을 꾀하는 이승만을 몰아낸 4·19혁명의 시위대조차 맥아더의 동상에는 꽃다발을 안겼다는 사실이다.[6] 독재 정권이나 그에 저항한 민주 세력이나 맥아더를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긴 데는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맥아더에 대한 이 같은 숭배 분위기를 고려할 때, 20세기 후반의 남한 영화 가운데 그를 영웅으로 묘사한 작품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은 뜻밖이다. 한국전쟁을 다룬 남한 영화의 대표작을 꼽는다면 이만희 감독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과 임권택 감독의 「아벤고 공수군단」(1982)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가 대항마를 찾을 수 없는 시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에서 맥아더는 등장은커녕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맥아더는 고사하고 미국에 고마워하는 정서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비인간적인 전쟁터에 내던져진 한국인의 비극을 한탄하며 미국을 포함한 외세를 향해 원망을 토로하기까지 한다.

인천상륙작전 직전 시기를 다룬 「아벤고 공수군단」을 보자. 전형적인 반공 영화의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반전(反戰) 메시지를 던

6) 권혁빈,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구국의 영웅' 그 이면에는 현대사의 질곡」, 『주간경향』 제1201호, 2016년 11월 15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11081919131&pt=nv (2021년 11월 10일 검색).

지는 묘한 영화다.[7] 이 영화가 반공 영화의 상투적 틀을 깨는 파격 가운데 으뜸은 미국을 보는 시각이다. 「아벤고 공수군단」은 한국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을 가상한 세계 열강국들의 국지전 전시장"[8]으로 묘사하면서 한국인을 동족상잔으로 몰아간 강대국, 특히 미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영화에서 고혁주 중령(남궁원 분)은 원산에 상륙작전을 감행할 아벤고 공수군단의 지휘관으로 등장한다. 이 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적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미군이 고안한 성동격서 전술의 일환이었다. 고 중령의 부대원들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원산에 투입되어 죽어갈 운명이었다. 암호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고 중령은 미군 지휘관 알렉산더에게 달려가 격렬하게 항의한다. "나는 부하들을 그토록 무의미하게 죽도록 훈련시키지 않았소!" 그러자 알렉산더는 "화풀이는 김일성에게 가서 하시오."라고 비아냥거린다. 그 말에 대한 고 중령의 반박은 이 영화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다. "이 전쟁은 지도 위에서 시작되었소. 38선 그은 놈이 책임져야 해!"

「아벤고 공수군단」에 맥아더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이 대사 하나만으로도 미국과 맥아더에 대한 감독의 인식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5.18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남한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독재 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1980년대까지도 남한 영화에서 영웅화된 맥아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굳이 한 가지 사례를 찾아보자면 통일교 자본으로 제작되어 「아

---

7) '반전 영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리메이크해야 할 국산 영화로 「아벤고 공수군단」을 꼽은 평론도 있었다. 이문원, 「'자국영화 리메이크'는 시장에 활력을 준다」, 『올인코리아』, 2015년 12월 28일. http://www.allinkorea.net/347 (2021년 11월 5일 검색).

8) 이하나, 앞의 논문, p. 85.

벤고 공수군단」과 같은 해 개봉한 대작 「인천(Inchon)」을 꼽을 수 있다. 1970년대의 데탕트를 '시대적 위기'로 생각한 문선명이 맥아더를 냉전적 반공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 내세워 인천상륙작전을 재현한 작품이었다.[9] 그러나 이 영화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 주제의식과 제작 과정의 혼선으로 인해 흥행과 작품성 평가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는 어느 정도 희석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 남한 사회에서 2010년대 들어 맥아더의 신격화를 시도한 영화가 등장한 것은 역설적 현상처럼 보인다.

이재한 감독의 「인천상륙작전」은 "21세기 들어 나름대로 남북 대결구도를 깨려고 시도해온 영화계의 흐름을 가장 민감한 소재를 통해 부정하고 나선 작품"[10]이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맥아더가 아니다. 인천상륙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인 요원들의 영웅담이 영화의 기둥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상륙작전에 앞서 인천에 침투해 정지 작업을 벌인 해군 첩보부대 장학수 대위(이정재 분)와 그의 상대인 인민군 인천방어사령관 림계진(이범수 분)이 주요 배역이다. 그러나 출연 분량은 많지 않아도 영화에서 맥아더가 차지하는 비중과 존재감은 앞의 두 인물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배역의 영향력에서는 리암 니슨(Liam Neeson)이 연기한 맥아더가 장학수와 림계진을 압도한다.

「인천상륙작전」에서 맥아더의 영웅성, 특히 남한 사회에 소구하는 영웅성이 드러나는 장면은 크게 두 군데를 꼽을 수 있다. 미국

---

9) 김남혁, 「데탕트 이후 영화의 한국전쟁 재현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제74호, 2019, p. 11 참조.

10) 손석춘, 앞의 논문, p. 206. 반공 이데올로기가 퇴색하는 시대의 흐름에 맥아더를 내세워 반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인천상륙작전」은 「인천」의 재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을 밀어붙이는 장면과 전쟁 초기 전장을 둘러보던 맥아더가 참호에서 한국인 소년병사를 만나는 장면이다. 두 장면은 서로 연동되어 후자가 전자의 근거로 제시된다. 인민군이 쓸고 간 참호에서 홀로 살아남은 소년에게 맥아더가 묻는다. 왜 후퇴하지 않았느냐고. 소년은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맥아더 같은 군 지휘관에게 그보다 더 믿음직한 병사는 없다. 맥아더는 이어서 묻는다. 무엇을 해 주기 바라느냐고. 소년은 무기와 충분한 탄약을 달라고 대답한다. 맥아더는 이처럼 투지를 불태우는 소년을 보고 이 나라를 지켜주어야겠다는 결심이 섰노라 회고하고 있다.

맥아더가 정말 이 감동적인 장면처럼 한국과 한국인을 지켜주기 위해 한국전쟁을 수행했는가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적지 않다. 또 영화에서는 맥아더가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 이유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았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는 맥아더의 천재성과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정신이 전제될 뿐 그 어떤 합리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재한 감독에게는 미안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은 작품성을 논할 만한 영화가 아니다. 영화 전문지 『씨네 21』은 10점 만점에 3.0의 평점을 이 영화에 매겼다.[11] 영화도 아니라는 평가에 가깝다. 이처럼 인색한 평가를 받은 데는 맥아더를 영웅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몫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도 2016년 남한의 대중은 이 영화에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극심하던 시절에도 영화로 잘 표현되지 않던 맥아더의 신격화가 21세기의 '개명 천지'에 이처럼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한 전우」의 외국인 영웅 노비첸코 소위와 비교하면서 찾기로 하자.

---

11) 「인천상륙작전」, 『씨네21』, http://www.cine21.com/movie/info/?movie_id=46338(2021년 11월 10일 검색).

3. 영화 「영원한 전우」와 노비첸코

「영원한 전우」는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보천보창작단과 소련의 모스필림영화촬영소 제2창작단이 공동 제작했다. 김일성과 소련군 장교의 인연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로 맺어진 두 나라의 우정과 연대의식을 기리고 있다. 소련은 이 영화가 완성된 지 얼마 안 되어 역사 속으로 퇴장했으나, 영화는 그 후로도 30년 넘게 북한에서 잊히지 않고 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현상은 수령과 인민의 일체화라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과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전우」의 중심인물인 노비첸코는 사회주의 연대나 북·소 친선보다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데 더 의미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소련과 함께 만든 영화는 이전에도 있었다. 1957년 조선국립영화촬영소와 소련의 고리키영화촬영소가 함께 만든 북·소 합작영화 「동방의 아침」이다. 시나리오 단계부터 공동으로 진행된 이 영화는 세계적 무용가 최승희와 딸 안성희, 인민배우 황철 등 화려한 출연진과 함께 그해 1월 소련의 세트장에서 촬영을 시작했다.[12]

나중에 「형제」로 제목이 바뀐 영화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자. 한국전쟁 당시 피란을 떠났던 어머니(최승희 분)는 전쟁이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온다. 세 아들 가운데 첫째 만성은 발전소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었고 둘째는 전쟁 중 사망했으며 서울에서 공부하던 셋째 만철은 소식이 끊겼다. 그 셋째가 어느 날 불쑥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는 서울에서 리가(李家)에게 포섭된 간첩이었다. 만철은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 전후 복구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12) "쏘련에서 조·쏘 공동 제작 영화 ≪동방의 아침≫의 촬영 개시," 『로동신문』, 1957년 2월 1일.

흔들린다. 마을에 위문 온 무용단에서 옛 애인 옥림(안성희 분)을 발견하고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린 만철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고백한다.

소련과 합작으로 영화를 만들면서 한국전쟁 직후의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넘긴 '조선의 어머니'를 형상화하는 것은 북한 문화계에 큰 의미가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해방 후 소련을 따라 배우며 성장하던 북한 사회가 이제 소련의 선진 문화를 흡수해 자기 방식대로 표현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해방 후 북한은 소련의 선진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1949년 10월에는 '조쏘친선과 쏘베트문화 순간(旬間)'을 두고 소련 사회와 인민 생활을 소개하는 강연회, 강좌, 좌담회, 전람회, 영화상영, 공연 등을 개최했다.[13]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뒤에는 김일성이 직접 "우리들은 쏘련을 향하여 배워야 하겠습니다."[14]라는 교시를 내릴 정도로 소련 문화의 수용을 갈구했다. 1955년 8월의 '조쏘친선 월간'에는 전국적으로 1만 6000여 회에 걸쳐 연인원 450여만 명이 소련 영화를 감상했다. 이 단계에서 북한은 소련 문화의 전면적 수용에 성공하고 소련의 경험을 일정하게 자기화할 수 있었다.[15] 「형제」는 바로 그러한 자신감을 영화 부문에서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영화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소련과 공동 제작에 나선 「형제」 주위에는 그 준비 단계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1956년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기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중국, 소련에 연고가 있는 연안계와

---

13) 정진아, 「북한이 수용한 사회주의 쏘련의 이미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22권 제2호, 2010, p. 153.

14) 김일성, 「모든 것은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 1953년 8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p. 100.

15) 정진아, 앞의 논문, pp. 156-159.

소련계의 일부 인사가 김일성에 도전했다가 역공을 받아 이후 대대적인 숙청을 당했다. '8월 종파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북한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아왔다.[16]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계는 연안계와 소련계를 반당 종파 분자, 사대주의 세력으로 배척하고 자주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토록 활발하던 소련과의 문화 교류는 1950년대 말로 가면서 위축되고, 소련으로 망명하는 당 간부와 귀국을 포기하는 소련 유학생이 속출했다.[17]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김일성은 1957년 10월 5일 "예술영화 「형제」가 당성, 노동 계급성을 심각히 상실했다고 지적"[18]했다. 이듬해 초에는 영화예술인들에게 "반당종파분자들과 추호도 타협하지 말고 강한 투쟁을 벌려"[19] 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훗날 「형제」는 "교조주의에 물젖은 일부 창작가들이 남의 나라 영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무턱대고 모방하려고 한 예술영화"[20]라는 혹평을 받았다. 「형제」의 몰락 이후 북·소 관계의 경색이 길어지면서 1980년대 초까지 북·소 합작영화는 물론 소련과 관계된 어떤 영화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198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영화 「영원한 전우」가 제작될 수 있었을까? 「형제」의 퇴장이 그랬듯이 「영원한 전우」의 등장도 정치적 배경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1970년대 말 중국

16) '8월 종파사건'의 전말에 관해서는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현대정치사』, 오름, 1995, pp. 187-251;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pp. 553-554 참조.

17) 이준엽·한상언, 「북한 초기 칼라영화의 형성과정과 특징(1950-1957)」,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현대영화연구』 제14권 제4호, 2018, pp. 117-118 참조.

18) 최척호, 앞의 책, p. 45.

19) 김일성, 「영화는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한다 : 영화예술인들앞에서 한 연설 1958년 1월 17일」, 『김일성전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8, p. 186.

20) 김룡봉, 『조선영화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3, p. 102.

이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미국과 수교하자 북한과 소련은 서로에게 접근했다. 북한의 정사(正史)에서 40년 가까이 지워져 있던 노비첸코와 김일성의 인연이 재조명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21] 1984년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4100㎞나 떨어진 크라스노야르스크까지 가서 노비첸코의 집을 찾았다고 한다.[22] 그때 북·소 친선의 상징으로 떠오른 노비첸코는 마침내 새로운 북·소 합작영화의 핵심 캐릭터로 선정되고, 북한 인민이 사랑하는 외국인의 반열에 들었다.

엄길선과 엘도르 우라즈바예프(Эльдор Уразбаев)가 메가폰을 잡은 「영원한 전우」의 줄거리를 살펴보자. 안드레이 마르티노프(Андре́й Мартьи́нов)가 연기한 소련군 장교 노비첸코와 최창수가 연기한 유격대원 리창혁은 한반도를 해방하기 위해 진격하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고 평생 동지가 된다. 평양에 진주한 뒤 소련으로 휴가를 떠나려던 노비첸코는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김일성의 모습에 감화를 받아 휴가를 미루고 북한을 돕기로 한다. 1946년 삼일절 기념식의 경비를 맡고 있던 노비첸코는 우익 테러 단체 백의사 단원들이 김일성을 노리고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한쪽 팔을 잃는다.[23] 소련으로 돌아갔던 노비첸코가 훗날 가족 동반으로 북한을 찾아 인민의 따뜻한 환영을 받는 장면에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24]

---

21) 門間貴志, 앞의 책, p. 218 참조.

22) 「'김일성 은인' 노비첸코와 김정일」, 『조선일보』, 2001년 8월 1일.

23) 해방 직후 소련군 제25군사령부에서 근무한 레오니드 바신(당시 소령)은 이 사건이 소련 비밀경찰(KGB)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화제」 김일성과 蘇軍장교 노비첸코의 '기이한 인연'」, 『연합뉴스』, 1998년 3월 10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369506(2021년 11월 20일 검색).

24) 계훈혁, 「불멸의 위훈, 숭고한 의리에 대한 화폭- 조쏘합작예술영화 ≪영원한 전우≫에 대하여」, 『조선영화년감 1986』, 평양: 문예출판사, 1987, pp. 187-190 참조.

노비첸코 역의 마르티노프는 거의 모든 면에서 맥아더 역의 리암 니슨과 대비된다. 계급도 소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체격도 위압적이지 않고 외모도 전혀 근엄한 데가 없이 수더분하다. 시베리아 농부 출신답게 소작농인 리창혁의 부모님 댁을 찾아 스스럼없이 농사일을 거들고 사람들과 어울린다. 바로 그러한 인물이 자기 한 몸을 희생해 김일성의 목숨을 구하는 순간, 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민의 영웅으로 떠오른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누구라도 그와 같은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특별한 영웅! 이것이 1980년대 북·소 관계의 예상치 못했던 흐름 속에서 탄생한 북한 최고의 외국인 영웅상이었다.

4. 맥아더와 노비첸코의 비교 – '수호신'과 '동지'

맥아더와 노비첸코라는 대조적인 외국인 영웅상은 각각 남북한 사회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맥아더는 남한의 친미 반공 세력에 의해 공산 침략군을 물리친 수호자로 받들어져 왔다. 그러한 태도는 21세기 들어 남북교류가 진전됨에 따라 미국 이슈가 남남갈등의 쟁점이 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맥아더는 다수의 남한 국민에게 범접할 수 없는 '수호신'이 되었으나, 그에 못지않은 다수의 국민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노비첸코는 1980년대 북·소 친선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래 북한 인민의 '동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수령을 북한 사회의 뇌수로 인식하고 있는 인민에게 수령의 은인은 곧 자신의 은인이다. 이처럼 친근하고 고마운 동지 노비첸코는 소련이 붕괴한 뒤로도 북한에서 여전히 기념과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웅 노비첸코의 의미는 이념적 연대보다는 수령과 인민의 공동 운명을 확인시켜 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불거진 남남갈등은 왜 맥아더를 점점 더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올려놓게 되었을까? 친미 반북 이데올로기를 생존의 보루로 여기는 보수 우익은 북한에 대한 체제 인정과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믿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몰아붙였다. 그들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도발을 접할 때마다 한국전쟁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인천상륙작전을 꿈꾸면서 맥아더를 소환해 북한과 종북 좌파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남한에서 맥아더의 신격화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무속인이 실제로 그를 신으로 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맥아더가 한국사 속에서 처음 신으로 숭배된 외국인은 아니다. 이전에도 종종 외국인이 무속 신의 반열에 오르곤 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맥아더 같은 무장이었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관우는 서울의 동묘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숭배되고 있다. 관우가 중국에서 문의 공자와 쌍벽을 이루는 무의 신이라는 점에서 이는 동아시아의 보편적 현상이다. 진(秦) 말기의 장수 전횡,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唐) 장수 설인귀 등이 외국인 무속 신의 계보를 이었다.

맥아더가 특별한 점은 그 계보에 속하면서도 서양 출신으로는 최초의 무속 신이라는 것, 전통 시대가 아닌 현대에 와서 신격화된 존재라는 것이다. 맥아더의 신격에 대해 심형준은 "민중적 토대보다는 지배층의 선전으로 공식화된 문화적 상징성을 일부 종교 전문가들이 지역적 요소와 결부해서 채택한 것"[25]으로 보았다. 반면, 유민형은 맥아더를 몸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인천 무속인 이정자를 인터뷰한 결과 "정치적, 보수적인 하향식 교육의 측면이 보

25) 심형준, 앞의 논문, p. 274.

이지 않는다."[26]라고 주장했다. 지배층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신앙이라는 것이다.

진보 진영은 이 같은 맥아더 숭배 현상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맥아더의 정치적 야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패권주의적 사고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미국 역사학자 마이클 샬러(Michael Schaller)의 저서가 국내에 소개되고, 그의 관점을 수용한 방송이 전파를 탔다.[27] 맥아더 신도들에게 전가의 보도나 마찬가지인 인천상륙작전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인천은 "상륙이 예견되던 항구 세 곳(원산, 군산, 인천) 가운데 하나였으며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미국 국방성이 SL-17이라 명명했던 '전쟁시나리오'에 상륙을 감행할 지역으로 이미 예정된 곳이었다."[28] 맥아더 한 사람이 초인적 예지로 이루어낸 기적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진보 진영이 볼 때 맥아더가 한국의 수호신이 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그가 결코 한국과 한국인을 위해 한국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이 개입하면서 유엔군이 밀리게 되자 맥아더는 중국과 한반도에 32개의 핵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세우고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만일 그 계획이 실현되었다면 중국과 한반도 주민은 전멸했

---

26) 유민형, 앞의 논문, p. 202. 맥아더는 주로 인천 지역에서, 황해도 출신의 무속인들에 의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정자의 아버지는 황해도 출신인데, 황해도 지역 무속인은 중국 신격을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같은 논문, pp. 196-200).

27) Michael Schaller, *Douglas MacArthur: The Far Eastern Gener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MBC는 2003년 이 책의 견해를 반영해 맥아더를 비판적으로 조명한 프로그램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너에서 두 차례 방송했다.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은 2004년 이매진에서 『더글러스 맥아더』(유강은 옮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28) 고지훈, 「맥아더, 한국에서만 '신'이 된 사나이」, 『오마이뉴스』, 2005년 9월 11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79936(2021년 10월 5일 검색).

을 것이고, 두 나라는 풀 한 포기 살 수 없는 황폐한 흉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29] 미국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에 따르면, 트루먼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수긍하지 않는 맥아더를 즉시 해임했다.[30]

맥아더에 대한 진보 진영의 비판 의식은 일부 단체에 의한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으로 이어졌다. 2005년 5월, 진보 단체인 미군추방투쟁공대위는 산하에 맥아더동상타도특위를 조직하고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는 운동을 시작했다.[31] 대한제국 시기에 '만국공원'으로 개장한 자유공원이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57년이었다. 아직 맥아더가 생존해 있던 그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7주년 기념일에 맞춰 만국공원 내 세창양행 사택 부지에 맥아더 동상이 건립되었다.[32] 그 직후 인천 시는 맥아더가 이끌던 '자유의 십자군', 즉 유엔군의 공로를 찬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만국공원을 자유공원으로 개칭했다.[33]

자유공원과 맥아더 동상이 이처럼 친미 보수 진영의 성지와도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은 남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그런 시기에 대표적 반미주의자로 알려진 강정구 전 교수가 맥아더를 '38선 분단 집행의 집달리'로

---

29) 편집부, 「〔기자회견문〕 맥아더동상 철거」,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 노동』 제115호, 2015, pp. 106-107.

30) 존 루이스 개디스 지음, 정철·강규형 옮김, 『냉전의 역사 -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에코리브르, 2010(Gaddis, John Lewis, *THE COLD WAR : A New History*), p. 77.

31) 「[맥아더동상 철거 논란] "역사 부정하는 또다른 폭력"」, 『국민일보』, 2005년 7월 18일.

32) 「正義의 象徵 맥아더將軍 - 15日上午 仁川서 銅像除幕式盛大-」, 『조선일보』, 1957년 9월 16일.

33) 최원식, 「자유공원을 다시 계획하자」,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통권 제8호, 1995.09, p. 114 참조.

비난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34]

나아가 진보 진영은 인천 출신의 대표적 진보정치인인 조봉암을 기리는 동상을 세워 인천을 상징하는 인물을 교체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조봉암은 1950년대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었던 정치인으로, 맥아더 동상이 제막된 이듬해 이승만이 씌운 간첩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1959년 처형되었다. 그가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고 신원을 회복한 것은 사후 52년 만인 2011년이었다. 이승만이 권력을 지킬 목적으로 맥아더 동상을 세우고 조봉암을 무고했다는 것이 진보 진영 측 주장의 근거였다.[35]

보수 진영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2005년 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를 조직하고 맥아더 동상을 지키는 운동에 나섰다. 그들은 매년 한두 차례 자유공원에 모여 '국가안보와 맥아더장군동상보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36] 그들이 조봉암 동상의 건립에 반대한 것은 물론이다. 한반도를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고 그곳을 폐허로 만들어 버릴 핵 공격 구상에도 거리낌 없던 맥아더는 그들에게 없었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위인 맥아더만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한술 더 떠 유엔군을 기리는 뜻에서 명명된 자유공원을 '맥아더장군공원'으로 개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37]

맥아더가 트루먼에 의해 해임된 것이나 그의 동상이 철거 위험에 처한 것은 그를 신격화하는 명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

34) 강정구,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 『중앙일보』, 2005년 7월 2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45553(2021년 10월 10일 검색).

35) 이희환, 앞의 논문, pp. 394-396 참조.

36) 같은 논문, p. 386 참조.

37)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장군공원으로 개명을」, 『기호일보』, 2016년 10월 21일.

무속 신앙에서 무신(武神)들은 종종 억울한 희생을 강요당한 원령(怨靈)이었다. 청(淸)의 침략에 저항하다 역모의 누명을 쓰고 죽은 임경업이나 비천한 집안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가 관군에 의해 비극적 죽임을 당한 아기 장수가 대표적 사례다. 맥아더를 신봉하는 무속인들은 맥아더와 그의 동상이 겪은 시련을 불명예가 아닌 부당한 억압으로 해석하고, 그를 '원령신'이라는 보편적인 무속 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38]

한편, 노비첸코는 역사적 존재감이나 계급, 사회적 지위 등에서 맥아더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왜소하다. 그러나 맥아더가 남한에서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반쪽 영웅인 데 반해 노비첸코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북한 전체 인민의 영웅이다. 그는 1946년 삼일절 이후 김일성에게 감사의 대상이었고, 1985년 「영원한 전우」 이후로는 북한 정권이 대를 이어 살피는 동지가 되었다.

노비첸코가 북한에서 누리는 특별한 사랑은 1960년대 이래 북한 사회를 지배해 온 주체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체사상의 수령관이 수령을 뇌수, 인민을 각 기관으로 여기는 유기체적 세계관이라는 사실은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다. 이 같은 세계관에서 수령과 인민은 하나의 유기체 속에서 긴밀히 결합해 공동 운명체를 이룬다. 노비첸코가 뇌수인 수령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유기체의 각 기관을 이루는 인민의 생명도 함께 구한 셈이 된다. 게다가 그러한 생명의 은인이 북한의 평범한 인민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시베리아 출신 젊은 장교라는 사실은 친근감을 더욱 높여준다.

이 같은 노비첸코의 상징성은 북한에서 대를 이어 강조되고 활용되었다. 노비첸코는 북한의 혁명을 도우러 온 소련군 소위로서 김일성의 목숨을 구했다. 노비첸코가 김일성을 구했을 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국제 연대였고,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38) 유민형, 앞의 논문, p. 202 참조.

했을 것이다. 1980년대 들어 북·소 친선이 강조되면서 영화 「영원한 전우」가 만들어진 뒤 양국은 두 편의 합작영화를 잇달아 제작했다.[39]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고 사회주의 국제 연대가 무너진 뒤에도 노비첸코에 대한 북한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북한에 더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연대나 북·소 친선보다 수령의 보위였기 때문이다.

수령의 대를 이은 김정일과 김정은도 노비첸코의 상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노비첸코와 유가족에게 제공했다. 노비첸코는 1994년 7월 8일 사망한 김일성의 뒤를 따라 5개월 만인 그해 12월 8일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노비첸코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며 유가족에게 조전과 화환을 보내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했다. 2001년 8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이 사실을 보도한 『로동신문』은 김정일의 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찬사를 덧붙였다.

> 참으로 그이의 사랑은 대륙과 대양도 횡단하고 위도와 경도를 넘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무한대의 사랑이며 세월의 한계를 모르는 영원한 사랑과 의리이다.[40]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당시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은 그가 노비첸코의 고향 부근 노보시비르스크역에 내려 노비첸코의 미망

---

39) 「봄부터 가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청진에 파견됐던 소련군 간호장교 마리아 추카노프(Мария Чуканов)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북·소 간의 '혈연적 관계'를 강조한 영화이다. 「구원의 해안」은 「영원한 전우」의 후편 격으로 북한 해안에 표류한 소련군 병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구조되어 함께 일제와 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러 합작 극영화는 모두 3편」, 『한겨레』, 2001년 8월 6일 참조.

40) 「외국의 벗들과 뜨거운 정 나누시는 절세의 위인」, 『로동신문』, 2001년 8월 2일.

인 마리아 노비첸코를 만나 인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북한 관리가 대신 여사와 자녀 5명에게 김 위원장의 선물을 건네줬다고 한다.[41]

수령 일가와 노비첸코 가족의 인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에까지 이어졌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하루 앞둔 2018년 7월 26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국제주의 전사 야.떼.노비첸꼬가족이 보내여온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42] 이듬해에는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노비첸코의 무덤과 고향 집을 방문해 헌화하고 후손들을 만났다.[43] 2021년 광복절을 앞둔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노비첸코가 "오늘도 조로 친선의 상징으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전우로 살아있다"면서 "피로써 맺어진 조로 친선의 전통은 두 나라 인민 공동의 노력으로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질 것"이라는 글이 게시되었다.[44]

소련이 붕괴하고 노비첸코의 국적이 러시아로 바뀐 뒤에도 대를 이어 계속되는 양가의 인연은 노비첸코가 북한에서 어떤 성격의 영웅인지 재확인해 준다. 남한에서 맥아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극단적인 분열이 북한에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과 인민이 일체화되어 노비첸코에게 보내는 찬사를 긍정적인 현상으로만 보기

41) 「北 김정은, 러시아 여성 사망에 조전 보낸 까닭은」, 『연합뉴스』, 2013년 3월 9일. https://news.v.daum.net/v/20130309072105451?f=p(2021년 10월 10일 검색).

4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해외연고자가족들 꽃바구니 진정」, 『로동신문』, 2018년 7월 27일.

43) 「北 외교관들, 김일성 목숨 구한 소련 장교 묘지 방문」, 『연합뉴스』, 2019년 5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1090900080(2021년 10월 10일 검색).

44) 「북한, 광복절 맞아 북·러 친선 강조」, 『SBS 뉴스』, 2021년 8월 14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2959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2021년 10월 10일 검색).

는 어렵다. 노비첸코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수령 일가의 신성성을 보완하는 도구로만 소모되다 보니 도리어 그 '숭고함'이 퇴색하는 느낌마저 있다.

북한에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외국인 영웅이 주목받는 사례는 마오쩌둥의 아들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마오안잉(毛岸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북·중 관계가 강조되던 시기, 예컨대 2010년과 2018년에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의 마오안잉 묘소를 참배하고, 조선중앙TV를 통해 중국 드라마 「모안영(마오안잉)」을 방영하곤 했다.

이처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방통행식으로 소비되는 외국인 영웅 담론은 북한 사회가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포섭되어 다양성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병리적 현상의 한 가지 징후로 읽힐 수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독재 권력과 결합해 남한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에 영웅화된 맥아더 역시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병리적 현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노비첸코의 영웅담을 수령 일가의 장식품처럼 소비하는 북한의 수령 사회와 크게 다르다고 하기 어려웠다. 맥아더 숭배 현상이 얼마나 특이하고 병적인 것이었는지 알려주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이외에 맥아더를 신격화한 곳은 태평양의 한 섬마을뿐이었다고 한다. 그나마 이 섬에서 맥아더는 선한 영웅이 아니라 전염병을 몰고 온 점령군의 지휘관으로, 병을 제어해 달라는 뜻에서 어쩔 수 없이 신으로 섬겨질 뿐이었다.[45]

그런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 들어 남한에서 맥아더의 영웅화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결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남한 사회가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처럼 민감한 문제에서조차 이성

45) 심형준, 앞의 논문, p. 277.

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바로 그런 시기에 보수 진영의 시각에서 맥아더에 대한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선 작품이었다. 비록 작품성에서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영화가 한국전쟁과 맥아더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합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면 완전한 실패는 아닐 것이다. 그러한 논쟁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맥아더는 신당의 제단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올 것이다. 한국전쟁을 비롯한 한국 현대사는 이데올로기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내려올 것이고, 맥아더의 역사적 위상도 올바른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5. 맺음말

북·소 합작영화 「영원한 전우」와 남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30여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만들어졌다. 두 영화의 주인공인 노비첸코 소위와 맥아더 장군은 비슷한 시기에 남북한과 인연을 맺기는 했지만, 서로 만나거나 부딪힌 적은 없었다. 그처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영화와 두 인물이지만, 그들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

장군과 소위라는 계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맥아더와 노비첸코는 전혀 다른 성격의 영웅이다. 맥아더는 범접하기 어려운 '수호신'으로, 노비첸코는 친근한 '동지'로 나타난다. 이처럼 대조적인 외국인 영웅상에는 분단에 기인한 남북한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이 대조적인 방식으로 투영되어 있다.

맥아더는 남한의 친미 반공 세력에 의해 공산 침략군을 물리친 수호자로 받들어져 왔다. 심지어는 현대사에서 최초로, 또 서양인으로는 최초로 무속 신의 반열에 올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되고

있기까지 하다. 반면, 진보 진영에게 맥아더는 군사적 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인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중국과 한반도에 다량의 핵무기를 투하하려 한 비정함의 소유자였다. 맥아더를 둘러싼 남남갈등은 21세기 들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노비첸코는 1980년대 북·소 친선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래 북한 전체 인민의 '영원한 동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수령을 유기적 공동체의 뇌수로 보는 북한에서 수령의 은인은 곧 공동체의 은인이다. 이처럼 친근하고 고마운 '동지' 노비첸코는 국적이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 바뀐 이후로도 변함없이 대를 이어 북한 정권과 인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북한에서 영웅 노비첸코는 무엇보다도 수령과 인민이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존재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인물 형상화의 사실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전우」의 노비첸코는 「인천상륙작전」의 맥아더보다 더 우월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노비첸코는 일반 민중에게 친근한 캐릭터라는 점을 떠나서라도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역사적 영웅이기 때문이다. 반면 맥아더는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처럼 만화적이고 초현실적인, 따라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존재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비첸코를 친근한 외국인 영웅으로 창조한 북한 사회가 맥아더를 신격화한 남한 사회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수령의 목숨을 구해 준 노비첸코를 자기 자신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애국적이고 순결해 보이는 인민의 태도 뒤에는 유기체론적 수령론의 음험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 맥아더를 숭배하지 않는 국민을 매국노, 종북 좌파로 매도해 온 남한 보수 우익의 태도 역시 그러한 북한 수령론자의 태도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영원한 전우」와 「인천상륙작전」이 창조한 노비첸코와 맥아더 캐릭터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필름 창고에 갖다 버려야

할 대상일까? 그렇지만은 않다. 노비첸코의 영웅적 희생정신이 북한 사회에서 소비되는 양상의 문제점을 알았다는 것은 이 캐릭터의 합리적 핵심을 살려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아더가 부당하게 신격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맥아더의 존재 자체가 한국 현대사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노비첸코의 희생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해 감동을 주는 주제이다. 사실 북한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봐도 노비첸코의 행동은 감동적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장막을 벗겨 내고 진실의 각도에서 본다면 노비첸코의 영웅성은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온 이름 없는 장교가 자신의 몸을 던져 혈연도 지연도 없는 현지인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1946년 3월 북한이라는 시공간을 정치적 편견 없이 탐구한다면, 평범한 인간이 영웅적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의 일반적 조건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제주의 전사' 노비첸코의 진면목, 즉 사회주의가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오염되기 전 인간과 세계의 보편적 진보를 믿고 활동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시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영원한 전우」는 비록 정치적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인간과 역사를 이해하는 텍스트의 가치는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노비첸코와 대조적으로 맥아더는 전형적인 반(反)영웅(anti-hero)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캐릭터다. 신격화된 역사적 존재는 그 신성함의 허구를 밝혀내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맥아더가 한국인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 전쟁의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새롭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된다. 그때 우리는 한국전쟁을 둘러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결코 단순한 진영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할 수 있다. 맥아더가 그리

대단한 지략가도 아니고 정의로운 군인도 아니었다는 비판에 검토해 볼 만한 요소가 있다면 어떨까? 맥아더에 대한 재평가를 넘어 그에 대한 포폄(褒貶)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한국 현대사 자체가 재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인천상륙작전」과 「영원한 전우」에서 맥아더와 노비첸코가 남북한 사회의 외국인 영웅으로 재창조된 역사적 맥락은 흥미롭다. 두 영웅 캐릭터가 해당 영화의 텍스트를 넘어 남북한 현대사의 새로운 문맥에서 재조명될 수 있다는 사실은 더 흥미롭다. 그런 의미에서 맥아더와 노비첸코는 남북한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와 함께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캐릭터라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국민일보』, 2005년 7월 18일.
『기호일보』, 2016년 10월 21일.
『로동신문』, 1957년 2월 1일, 2001년 8월 2일, 2018년 7월 27일.
『씨네21』, http://www.cine21.com/movie/info/?movie_id=46338(2021년 11월 10일 검색).
『연합뉴스』, 1998년 3월 10일, 2013년 3월 9일, 2019년 5월 1일.
『조선일보』, 1957년 9월 16일, 2001년 8월 1일.
『한겨레』, 2001년 8월 6일.
『SBS 뉴스』, 2021년 8월 14일.

2. 논문

강정구,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 『중앙일보』, 2005년 7월 2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45553(2021년 10월 10일 검색).
계훈혁, 「불멸의 위훈, 숭고한 의리에 대한 화폭 - 조쏘합작예술영화 ≪영원

한 전우≫에 대하여」, 『조선영화년감 1986』, 평양: 문예출판사, 1987, pp. 187–190.
권혁빈,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구국의 영웅' 그 이면에는 현대사의 질곡」, 『주간경향』 제1201호, 2016년 11월 15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11081919131&pt=nv(2021년 11월 10일 검색).
고지훈, 「맥아더, 한국에서만 '신'이 된 사나이」, 『오마이뉴스』, 2005년 9월 11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79936(2021년 10월 5일 검색).
김남혁, 「데탕트 이후 영화의 한국전쟁 재현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제74호, 2019, pp. 7–41.
김일성, 「영화는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한다 : 영화예술인들앞에서 한 연설 1958년 1월 17일」, 『김일성전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8, pp. 180–188.
손석춘, 「인천상륙작전의 소통과 치유 –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비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제70집, 2017, pp. 201–232.
심형준, 「역사적 인물의 상징화와 신격화 맥아더에 관한 두 개의 기억」, 종교문화비평학회, 『종교문화비평』 제30권 제30호, 2016, pp. 252–283.
유민형, 「황해도굿의 '맥아도 몸주신' 연구 – 이정자 만신을 예증삼아 –」, 한국무속학회, 『한국무속학』 제40집, 2020, pp. 187–211.
이문원, 「'자국영화 리메이크'는 시장에 활력을 준다」, 『올인코리아』, 2015년 12월 28일. http://www.allinkorea.net/347(2021년 11월 5일 검색).
이준엽 · 한상언, 「북한 초기 칼라영화의 형성과정과 특징(1950–1957)」,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현대영화연구』 제14권 제4호, 2018, pp. 111–140.
이하나, 「북한 전쟁영화의 기억법과 소구법 –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남한 전쟁영화와의 비교를 통해 본 북한 전쟁영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19권 제1호, 2015, pp. 73–114.
이희환, 「반공도시 인천과 맥아더 동상의 냉전정치학」,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통권 제97호, 2017. 12, pp. 386–397.
임인재 · 함충범, 「남북한 영화의 교류 · 관계사 연구(1945~1960)」,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제85집, 2021, pp. 159–210.
정영권, 「남북한 전쟁영화의 민족 재현 비교연구 : 〈돌아오지 않는 해병〉

(1963)과 〈월미도〉(1982)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제11호, 2010, pp. 185–209.
정진아, 「북한이 수용한 사회주의 쏘련의 이미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22권 제2호, 2010, pp. 139–168.
최원식, 「자유공원을 다시 계획하자」,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통권 제8호, 1995.09, pp. 113–118.
편집부, 「[기자회견문] 맥아더동상 철거」,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제115호, 2015, pp. 106–110.

3. 단행본

김일성,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송낙원 · 오영숙 · 장우진 · 정태수 · 조지훈 · 황보성진, 『남북한 영화사 비교연구(1945–2006)』, 국학자료원, 2007.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현대정치사』, 오름, 1995.
존 루이스 개디스 지음, 정철 · 강규형 옮김, 『냉전의 역사–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에코리브르, 2010(Gaddis, John Lewis, *THE COLD WAR : A New History*).
최척호, 『북한영화사』, 집문당, 2000.
門間貴志,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映畵史 : 建国から現在までの全記録』, 東京: 現代書館, 2012.
Michael Schaller, *Douglas MacArthur: The Far Eastern Gener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투고일: 2021.11.20 심사완료일: 2021.12.20 게재확정일: 2021.12.22.)

강응천
소속: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주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길 2(삼청동)
전자우편: eungchun@hanmail.net

[Abstract]

Comparison of Foreign Heroes in the South and North Korean Movies : MacArthur of *Incheon Landing Operation* and Novitchenko of *Eternal Comrade*

Kang, Eung-cheon

Incheon Landing Operation(2016) and *Eternal Comrade*(1985) are rare South and North Korean movies embodying foreign heroes. The heroes are General MacArthur, who lead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and Lieutenant Novitchenko, who saved Kim Il-sung's life shortly after the Liberation. While MacArthur is worshiped by South Korean conservatives, Novitchenko appears as an intimate friend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y reflec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two Korean societies originated from the Division. The domestic dispute over MacArthur in South Korea will not necessarily be a negative phenomena if the truth of history can be accessed through rational debate. Novitchenko's internationalist spirit of sacrifice can be seen as a subject that may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humans and history if we remove the political prism of the Supreme Leader system. The two foreign heroes can be re-examined in the new context of modern history beyond the text of the movies. We may say that they are living characters that could be transformed with changes in the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Key words: Korean movie, North Korean movie, foreign hero, *Incheon Landing Operation*, MacArthur, *Eternal Comrade*